

순천만 습지·철새 보전 사례 세계가 주목

‘세계 철새의 날’ 행사 국내외 전문가 대거 참가

조례 제정 등 체계적 관리 세계 5대 연안습지 자리매김 경제적 가치 연 1747억원

‘생명의 땅’ 순천만 습지와 철새 보전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최근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철새 서식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세계 철새·습지 생태 전문가 순천만 집결 = ‘세계 철새의 날’은 철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월 둘째 주말 각국의 철새관련 축제, 교육, 조류관찰 등 행사로 진행된다.

지난 13~14일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열린 ‘세계 철새의 날’ 행사는 순천만습지위원회와 순천시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동아시아습지지역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전남도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선 순천만습지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인증서 수여식과 유공자 표창도 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스파이크 밀링턴 사무국장은 “순천만은 흑두루미를 포함해서 멸종위기 야생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라면서 “순천만과 같은 지역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 한국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는 조류 분야의 국제기구, 민간·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철새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도로 진행된 철새 서식지 보전 현황을 점검하고 멸종 위기종 복원 사례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철새 서식지 관리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거정 순천만보전과장은 “세계 철새의 날 행사를 통해 철새 서식지 보전을 위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보존에 주력 = 순천만은 미국 동부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 유럽 북해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연안습지에 속한다.



순천시는 최근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들이 모여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개최한 ‘세계 철새의 날 행사’에서 ‘순천만습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사이트 인증서’를 받았다. 순천시와 지역 주민, 시민·시민사회단체·학계전문가 등이 인증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세계 5대 연안 습지의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녹색 갈대 물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순천만의 자연을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은 대한민국 연안습지 최초로 국제적인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됐으며, 국내 최대 흑두루미의 월동지이기도 하다. 특히 순천만은 국제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계절별로 다양하게 도래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

표, NGO 등 순천만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천만 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특히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조례도 제정했다.

또 순천만 생물 서식지를 확충하고 만조 시 철새들의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주변 육상부의 개발압력 예상지역 토지를 매입해 습지 복원도 추진 중이다. 순천만과 하구습지 동천, 논습지 등 습지생태축을 연계한 통합적인 습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순천만습지 보전·경제적 효과만 연 1747억원 = 순천만 습지 보전으로 순천만은 국내 생태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순천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또 습지 보존 효과로 흑두루미 개체도 1996년 80마리에서 2015년 1432마리로 18배나 증가했다. 순천만습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순천만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순천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를 제외한 관광객 여행 비용 추정을 통한 경제적 가치만 연 174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고질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전담반 가동 등 내달말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순천시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순천시는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고지서와

납부 안내 메시지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 재산 일제 조사를 통해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을 비롯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가동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일시적 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납하도록 하고 압류 재산 공매 보류, 생계 차량 번호판 영치 연기, 신용불량 등록 철회 등으로 회생 및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복지와 순천시 발전의 재원이 되는 만큼 고질적인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개인인 가상 계좌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순천지원, 위기가정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고흥 이어 보성·구례군과 협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인근 자치단체들과 위기가정 지원과 연계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17일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고흥군에 이어 10일 보성·구례군과 위기가정 지원과 연계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혼 증가와 가족 해체 심화에 따라 신중한 이혼 의사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이혼 위기가정 회복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법 절차와 민원 안내 등의 연계 업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는 등 사법 서비스 증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순천지원은 지난해 순천·광양·여수 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담당 지역 내 모든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마무리했다.

순천지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후견 복지사업을 군 지역까지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와 복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준원 순천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상담과 캠프, 사법 절차와 민원 안내, 외딴 지역민에 대한 법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청정 수질 부탁해” 조종훈 순천시장이 최근 순천시 주암면 광천수중보에서 청정한 수질 보존을 기원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다슬기 종패 100kg를 뿌리고 있다. <순천시 제공>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상황별 행동지침 마련

순천시가 여름 장마철 등을 대비해 관내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시에는 각 시설별 상·하행선 2명 이상 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및 운전자를 안전 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응급 복구반을 투입, 응급복구 계획에 따른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9일부터 한달동안 지하차도 10개소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 공사를 시행하는 등 여름철 우수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

지하고 지하차도 순찰활동 강화 및 배수로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시에는 각 시설별 상·하행선 2명 이상 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및 운전자를 안전 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응급 복구반을 투입, 응급복구 계획에 따른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9일부터 한달동안 지하차도 10개소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 공사를 시행하는 등 여름철 우수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연락처 : (062) 720-2872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